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3년 신년호 첫발행 1992.5.25 통권8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1.2월 신년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 * 께 * 가 * 는 * 길 * '93년 * 신년호

짜 임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단결과 애정으로 '93년 사업을 힘차게 만나보았습니다 / 4	최현숙
	수원지역위를 찾아서	서정은
	특집 I / 7	
	'93년 지탁연을 이끌어 나간 지도일꾼	편집부
	특집 II / 17	
	지탁연 가족 양케이트 (지방편)	편집부
	재정사업 / 27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자 !	재정사업국
	일본 탐방기 / 30	
	자본주의체제속에서 발달된 일본의 보육소	천미애
	글마당 / 34	
	시인 기형도는 죽고	김향진
	활동총갈 / 35	
	동계수련회, 정기총회, 대선활동	
	탁아소별곡 / 37	
	새 날, 성숙의 느낌	이근선
	소식과 소식 / 39	
	우리들의 목소리 / 45	
	박정애, 박성미, 이정님	
	문화단신 / 49	
	'놀이치료로 좋아졌어요' / 서현경, 연극 '어머니' / 박성연	
	지탁연 베품시장	
	편집부에서	

탁아소 백과 / 3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26

알아봅시다 / 29

☆☆ 앞 표지사진: '93년 동계수련회의 두번째날에 진행된 아동교육 분반활동
미술활동을 마치고 작품앞에서 강사(중앙)노수산씨와 함께..

뒷 표지사진: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오자 함박눈이 내렸다.

일하며 생각하며

단결과 애정으로

'93년의 사업을 힘차게!

최 현숙 (본 회 회장)

지난 한해를 정신차릴 틈도 없이 바쁘게 보내고 연말의 총격속에서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어 93년 1월 동계수련회를 통하여 새로운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의 지탁연사업은 지난 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보다 확대·강화하여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단계에 있다는 것과 작년의 사업평가속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사업의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금 힘찬 한해를 시작해봅니다.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탁아운동이 갖는 의미만큼이나 무거운 비중으로 과제가 다가오지만 '93년도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이래 그간 조직내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법개정사업을 가시적인 형태와 결과로 완료해 내야 하고, 경과조치 마감을 1년 앞두고 이에 따라 민간탁아소들의 조직적인 대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탁아운동세력이 새로운 상황과 조건속에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비중있는 세력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경제적 자립 마련을 위해 올 해안에 확실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와 전체가 상당한 책임량을 완수해야 하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비중있는 과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열심히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과제를 두고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의 완수를 위해서 각각의 사업을 어떠한 방식과 방식으로 성사시켜낼 것인가인데 이는 그간 닦아놓은 역량과 구조, 조직력을 미뤄보건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단지 일에 대한 전회원의 의지와 자세를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만이 관건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탁아활동을 통해 얻는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거리는 동지들이 가진 기량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은 교사들이 가진 일에 대한 헌신과 애정 그리고 겸허한 성실성입니다. 이런 면들이 바로 우리 조직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고된 일을 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지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탁아현장을 굳건하게 지키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더욱 깊이있게 하며 나아가 더욱 나은 것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가 주로 조직내적인 사업이었다면 올해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물을 내야하기에 더욱 일의 양이 많고 그만큼 강한 책임성이 수반되기도 한 것입니다. 예상컨대 우리의 활동조건속에서 이러한 사업운영은 서로를 힘들게하거나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 해는 모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를 아끼며 격려하는 바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하여 그간 바쁜 와중에 우리가 놓친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한해를 만들어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사업관행이 철저히 일만을 중심에 두었다면 앞으로는 과감히 이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업관행을 이뤄냅시다. 그리하여 조직의 기량이 늘고 사업이 확대됨과 동시에 우리가 가졌던 장점이 지속적인 동력이 되도록 합시다.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다시금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서 올 해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탁아소백과

임산부 간염 감염률 높아 유아간염 방지대책 시급

임산부가 B형 간염에 걸려있는 비율이 유흥업소등 위생업소 종사자, 저소득층 시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을 통한 유아의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22개 각 구 보건소에서 B형 간염 검사를 받은 임산부 9천 81명중 4백75명이 항원양성반응을 보여 5.2%의 간염 감염

율을 보였으며 이는 역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위생업소 종사자의 5.1%, 저소득층 시민의 4%, 사회복지시설수용자의 2.9%보다 높은 것이다.

출산에 의한 유아의 간염 감염은 수혈, 주사바늘에 의한 병원성 감염, 성접촉에 의한 감염, 보균자와의 공동식사 등 체내 분비물에 의한 경구적 간염등과 함께 b형 간염의 주요 감염경로로 지적되고 있다. (새건강신문)

만나보았습니다

이해와 배려속에서 지역활동을 계획 - 수원지역위를 찾아서

서정은(편집부)

편집부에서는 '93년 들어 처음으로 내는 신년호에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지난 해에 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 실정에 맞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위의 회원탁아소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활기차게 올해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수원지역위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기원(옹기종기, 지역대표), 유이녀(꿈동산), 손혜경(오산 햇살아가마울)선생님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서정은: 안녕하세요? 수원지역위 집 대표선생님들을 만나게되어 반갑습니다. 년 활동을 준비하느라 바쁘실 '함께 가는 길' 독자들에게 수원지역위의 모범적인 활동을 소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우선 각 집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이기원: 수원지역위 소속 탁아소는 현재는 세 곳입니다. 얼마전까지는 교회에서 하는 아이벳 놀이방이 있었는데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지난 12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옹기종기는 1991년 5월에 개원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탁아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원여성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고민이 여성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하는 목적과 맞아떨어지면서 만들게 되었어요. 주부모임이 주축이 되어 '90년부터 준비하여 지역조사작업을 하고..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수원지역을 조사해보니 공단지역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선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다 빈민지역으로 현재의 장소인 고색동을 선정했어요. 아이들은 평균 15명정도이고, 선생님은 현재 네 분이 계시지요.

손혜경: '90년 혜영, 용철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4학년이었어요. 그때

학교내에 '사회진출모임'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탁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레 우리 일이라는 인식을 했어요. 그때 지탁연도 알게되고 졸업후 교육 강좌를 듣고 탁아소설립준비를 같이 했지요. '92년에 오산지역에 와 살면서 햇살아가마울을 10월에 개원했으니 이제 녀달이 된 셈이에요. 아동이 현재는 4명에다 세분의 선생님이 계시니 운영이 어려워 고민이에요. 활동비가 5만원이에요. 오산은 공장이 거의 없어 어머니들의 직업이 앞서 옹기종기와 같이 거의 가내 부업이에요. 보증금 천만원에 단칸방이 대부분이고, 이를 보면서 지방소도시의 고용구조의 불안정함을 느껴요. 노동시간도 상상외로 길고.

정은: 새로 개원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것도 많을 텐데.

혜경: 글썽요. 1년정도 설립준비를 해왔기에 별 어려움은.. 그렇지만 예상외로 힘들던데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싸우고 난리였어요. 이제는 자리가 잡혀가면서 일이 재미가 있어요. 문제는 아동수가 적다는 것인데,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어요. 역전앞에 플랭카드를 걸거나 신문에 간지를 끼워넣는 등..

유이녀:원아수가 적어 고민하는 것은 우리 꿈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전에 노동현장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지난 '92년 총선이후에 서류동, 고동동의 빈민지역내 탁아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지금은 막연히 빈민지역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쩌든 현재의 매교동에 꿈동산을 개원하였어요. 주변이 수원의 명동이라하는 남문이 있고 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입소조건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기원: 고색동쪽으로 신도로가 뚫리면서 건축바람이 불어서 현재의 옹기종기도 이전이 고민이 됩니다.

이녀:적자운명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기에 후원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직접해 보니 정부지원도 없고, 단체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보육료만으로 유지되는게 너무 안타까와요.

혜경:실제로 교사의 저임금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메꾸고 있지만, 결혼도 해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후원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달리해요. 해결책은 오직 정부지원을 따내는 수밖에 없어요.

정은:수원지역위의 정부지원상황은 어떤지요?

기원:작년의 경우 아동지원은 못받았어요. 아동지원을 받을 대상도 없기도 했지만, 서류때고 작성하는 것이 좀 복잡해요? 교사들이라도 서둘러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도 놓치고 작업이 잘 안되었어요.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차근차근 아동 지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단지 '해야되는 작업' 정도로 인식한 것이지요. 올해 개특위활동에 대해 많이 고민되네요.

정은: '91, '92년 지역위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원: '91년도는 신고나, 거부나 등의 급박한 사안이 많아 수원지역위도 모였다 하면 이 문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 '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지역위의 역량을 놓고 볼 때 개원한 지 얼마 안되어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일들이 계속 터지고 .. 전체의 지침이나 요구는 많은데 모여서 얘기를 자유로이 할 수는 없었어요. 당장 급한 것은 자신들의 탁아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지요. 같이 하던 소꿉마당이 문을 닫고 옹기종기는 운영초기, 아이들은 3년정도 운영한 상태에다 여성회와 교회라는 차이도 있고 그에 따라 각 집 상황중심으로 흩뿔렸지요.

정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수원지역위 활동으로 발전시켰는지요? 그의 비결이나 방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원: '91년 말부터 제가 지역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잘되는 지역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행사에 참여해 칭찬(?)을 받고난 후부터일꺼예요. (전체 웃음)

또한 탁아교사들이 탁아활동에 대한 전망을 스스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인 듯해요. 탁아활동에 대한 교육작업, 연합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과정을 밟으면서 전망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성회, 교회라는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탁아활동을 공유점으로 해서 지탁연으로 몰자, 뭐 이런거였지요.

그 이전에 교사간 친목을 이뤄야한다고 생각하여 우선 자주 모였어요. 회의만 하느냐하고 불만갖던 것들이 어느새 없어지고.. 여름, 겨울에 지탁연 수련회에 참가하고 봄, 가을에는 단합대회 겸 엠티를 가지요.

'92년 6월 연휴에 지리산 동반을 2박 3일간 했는데 어쩌나 힘들었는지 서로간에 불것, 안 불것 다 보고나니 서로에 대해 끈끈한 정을



(지난해 늦가을 한국민속촌에서 교사 단합대회한 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후부터는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체적으로 결의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생겼어요. 전체수련회에 참여하는 등의 기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지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만이 우리 활동의 전제라는 것을 강하게 느껴요.

정은: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스스로 탁아활동에 대한 전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동교육활동과 자모조직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경: 올해 아동교육분과장은 모두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렇지만 자기만의 지식, 고민으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각 집의 작업과 성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속에서 지역위에서 조정이 되었어요. 개원한 지 얼마 안된 꿈동산, 햇살아가마울 등이 아동교육활동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큼니다. 다른 지역위 사업을 모방하는 지난해와는 달리 차근 차근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녀: 우리 아이들이 탁아소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로 인사성, 사회성이 좋아지고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볼때 탁아소의 긍정성, 진짜로 '키우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기원: 예를 들어 '92년 어머니큰잔치를 들면, 각 집 역량에만 맞춰졌다면 성과가 없었을거예요. 각 집 어머니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고 주었어요. 특히 6월에 있었던 요구대회에 지방지역위에서 참여하신 어머니들을 보면서 자극받고 1년의 활동속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탁아소활동에 애정을 갖습니다.

정은: 지역위에 대해 자부심들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혜경: 지역위 구조의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속에서 회의구조를 안정시키고, 정기화하는 것과 각 집의 운영 안정을 위해 자모와 교사조직의 강화, 각 집간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 나아가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탁아소와의 연대, 지역내 민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 등입니다.

아무래도 수원지역위 실정에 맞게 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집과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월례회의에서는 결의와 친목,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집대표회의를 만든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기원: 전체에서 수원지역위에 관심과 애정, 과분한 칭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 웃음) 탁아활동을 준비하는 후배, 그만 둔 교사들과 같이하는 친목계를 추진중에 있는데 올해 수원지역의 활동을 전국에서 지켜보시고 계심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1 /

'93년 지탁연을 이끌어 나갈 지도일꾼

편집부

1993년 계유년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며 동시에 지탁연으로서는 시설과 자격조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감하는 해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지탁연이 탁아운동의 정당성과 민간비영리 탁아소의 긍정성을 널리 알리는 가운데 예상되는 어려움을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년호 특집으로 지난 1월 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부회장과 사무국장및 지탁연 소속 18개 지역위원회의 대표일꾼들을 만나 올 한해 활동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지역위./ 이름./ 생년월일./소속 탁아소.

1.자기소개

2.93년 지역위 대표일꾼으로 가지는 활동계획과 포부.

신임부회장 / 남 미영



(1961.10.17생.

구로새터어린이집) 활동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여 밝고 의욕적인 자세로 활동하는

1.1984년 성심여자대학교 화학과 졸.1987년 새터어린이집 교사.1988년 지탁연 신진교육강좌 1기 수료 1990년 구로지역위원회 지역대표 '92.93년 현 구로지역위원회 자모조직분과장. 중앙자모조직분과위원 감사위원. 새터어린이집 원감

2.지탁연 부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게 된 올 한해의 계획은 맡겨진 아동교육분과와 조직분과의 활동이 좋은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실속있는 지탁연

한해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신임사무국장 / 이 경희



1.1988년 숙대 아동복지학과 졸.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탁아에 관심을 갖게됨.졸업후 88년 6월에 동부 슬기 아이방 개원준비를 시작으로 하여 탁아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짐. 1989년 오손도손에기방으로 옮겨 활동하면서 탁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됨.

1990년 현장경험에 아쉬움을 남기고 사무국 문화홍보간사로 발탁됨.그해 12월에 기혼녀가 됨. 1991년 임신.출

(1964.7.19생.사무국) 산으로 휴직 1992년 지탁연에 다시 복귀.

2.드디어 나도 '장'이 되었다.(잘할 수 있을까?)

올해의 소망은 두가지이다. 사무국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최대의 과제인 개정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과 일을 하는 엄마로서 지속적 활동을 위해 탁아소 옆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아참! 한가지 또 있다. 보답이가 아프지 말고 잘 자라서 내 활동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

< 신임 지역 대표일꾼 >

북부지역 / 태 재원



(1967.1.7 생.

어린이사랑방)

북부를 내 손으로 챙기고 싶다. 교사 개인개인이 가슴 따뜻하고 성실히 활동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북부지역이더라. 북부지역과 지탁연에 이 한몫 성실함으로 충실하겠습니다.

1.한국외국어대학교 1990년 탁아활동 주체. 지탁연 소개로 1990년 5월에서 1991년 5월까지 어린이 사랑방에서 자원활동하다가 5월 20일 부터 교사로 활동. 1992년도 북부지역 아동교육분과장. 1993년도 북부지역대표

2.처음으로 사랑방과 북부지역을 소개받았을 때 잘나가는 지역으로서 그 황홀함과 설렘으로 교사로 일한지 1년이 조금 넘을 무렵, 우리 북부는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한거다. 갑자기 나 혼자 힘으로 '다시 떠오르는 해'

를 창조하기란 무리이겠지만, 알차고 실속있는 작은

동부지역 / 조 용란



(1967.11.7생.)

1. 1989년 12월 오손도손 어린이집 자원활동. 1990년 4월 오손도손 어린이집 교사됨 (탁아소 아동교육과 자모관리에 관심 많이 가짐). 1991년 동부지역 실행위원장으로 활동. 1992년 지역대표로 활동. 6월 주민노래한마당 후속 불우이웃돕기 모임에 참가해서 활동. 12월 행당동 상황실장으로 대선때 활동
2. 동부지역은 세개의 탁아소로 이루어졌고 몇 분 안되는 교사이지만 탁월한 책임감과 헌신적 노력으로 다년간 지 오손도손어린이집) 역내에서 신뢰를 쌓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역 재개발과 교사 수급이 안되는 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탁아소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지역장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탁아교사의 원활하고 건강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탁아소에 대해 공동대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결코 개인의 문제와 탁아소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과 지탁연의 공동문제화 시키는데 힘쓸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 함께 일하는 동료임을 명심하고 그것을 지키고 돕는데 노력할 것이다.

중부지역 / 김 연희



(1966.3.7생.)

또래 놀이방)

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열심히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

논의와 실천이 결합될 수 있는 지역위가 되도록 모범을 보이고 또 중부지역 교사들의 단합된 힘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애쓰고 싶다.

1. 1989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선배의 피임에 빠져 탁아 활동을 함. 1991년 한해를 외도하고 다시 돌아와 또래두목이 되었다 경력에 비해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리숙하기만하다. 전년도에도 지역장 일을 맡아 많이 해매면서 힘겹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 나갈지 걱정이다.
2. 다른 지역위에 비해 아직은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긴다. 그러나 해송, 개구장이 그리로 또래 선생님들 모두가 잘해내려는 마음가짐을 굳히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앞

봉천지역 / 정 은진



1. 1988년 봉천동 애기방에 자원활동가로 첫발을 내딛다. 계속 자활가로 머물다가 1990년 학교를 마치고 91년 봄 상주교사로 눌러앉다.
2. 활동계획은 지역식구들과 계속된 논의를 거쳐 내용을 채워나갈 예정. 지역식구들의 끈끈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기냥 열심히 일할 작정임 (잘될지 모르겠지만..)

(1967.9.16 생. 봉천동애기방)

구로지역 / 김 명신 (1963.5.10 생.

부천시 / 최순옥



(1962.6.1생.)

1. 1984년 연대 불문과 중퇴. 1987~88 취업 (봉제 계통). 1988년 결혼. 1989년 득녀. 1991년 2월 토폰이 어린이집 교사활동 시작. 출산을 전후로 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육아문제에 대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소화해 내고 여건을 마련하는 장으로서 탁아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탁아활동을 시작.

2. 첫째, 탁아활동교사들의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토폰이어린이집) 활동의 전제라고 여겨진다. 교사들간에 이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아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사의 자질 향상을 이루어내는 것. 둘째, 지역운동, 여성운동 차원에서 조직가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지역여성 조직화의 추진주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 셋째, 개인적으로 장기적 활동의 토대를 모색하는 기간으로 잡고 준비. 넷째, 민탁연대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성남지역 / 권금숙



(1963.1.5생.)

1. 고향은 명청도. 양반가문의 5녀 2남 중 네째 규수로 자란 품위 덩어리의 여자에요. (믿거나 말거나) 현재 池(지)씨와 혼인 준비중. 단지 池씨라는 이유만으로 어마마마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어요. 성남 상대원에 위치한 푸른솔에 온지도 어언 4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20대에서 30대의 꽃다운 청춘을 바친곳.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겠고.

2. 매년 가을은 인물난으로 떠돌고 돌아부쳐 머나먼 서울행 버스를 타고, 전철로 .. 이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의 준비야 단단히 하고 있지만, 몸이 따라 줄지 모르겠어요. 일상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에서 탁아가 자리매김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지요.

대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지난해 침체되었던 영보법 개정활동의 물꼬를 트는 해로 만듭시다. 팔랑 팔랑!

전국18개지역위 중에서 지역위 구조의 변화가 있는 안양지역은 빠졌습니다.
(편집부 주)

인천지역 / 김동주



(1963.11.5생)

1. 1987년 6월, 종로5가 최초의 지탁연 사무실에서 실무간사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다. 1989년 지탁연 문화홍보간사로 활동. 1990년 1월 인천 효성동 우리동네 어린이집 개원 준비위원으로 활동. 그 해 11월에 개원하여 교사로 활동. 1991년 하반기에 인탁위 홍보부장 활동. 1992년 인탁위 교사조직분과장. 1992년 9월부터 인탁위 상근 회장으로 현재까지 활동.

2. 대표일꾼이란 살림을 책임적으로 맡아 잘 꾸려나가는 사(인)인(지역)인(사무)인(사람)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38명이라는 인탁위 대식구의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서 첫째,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이 필요하겠고 둘째, 38명의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잘해야겠고. 셋째, '93년도 목표인 탁아법 개정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식구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지탁연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인탁위 만세! 지탁연 만만세!

수원지역 / 이기원



(1967.11.16생.)

1. 시작한 동기는 총여학생회 활동중 탁아운동에 전망을 두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과 동시에 수원여성회 탁아소 건립 추진에 합류. 1991년 3월부터 5월까지 지역조사작업을 끝낸 후 현재 고색동에 웅기종기가 문을 열. 1991년 9월 지역대표로 지탁연과 인연을 맺은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올해까지 지역대표를 장기집권하는 이유는? 올해 이후에는 내게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서.

2. 첫째, 전 지역교사의 참력 궁합화 (왜냐하면 우린 愛情을 빼면 시체니깐.). 둘째, 전 교사의 지역대표화 (항시 마음가짐이 지역대표 수준(?)이라면 안되는 일이 있을 까? - 지역대표가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셋째, 지금 현재 있는 세군데의 탁아소의 안정화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지역위 분위기를 창출해 내겠다). 넷째, 아직 조직되지 못한 자모, 교사조직의 건설 마지막으로, 잘나가는 수원의 실체(?)를 보이고 싶다.

대전지역 / 권오원



(1968.3.10생,
샘국어선이집)

1. 공주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990년 12월부터 존스립계 탁아활동을 시작. 여전히 세련되지 못한 활동으로 살고 있지만 '사람좋은 이'로 살기위해 애쓰고 아이들과 지역(대화동)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2. 탁아소가 여러곳이면 저절로 모든것이 잘 될거라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지역위로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다지는 일에 주력해야 하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믿고 즐겁고, 기쁘게 일할 것이다.

전북지역 / 김난희



(1967.1.11생,
인터어선이집)

이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탁위 교사전체가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 1988년 기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 대학시절 '빈민여성, 빈민아동'이란 책을 읽고 막연하게 빈민탁아에 대한 고민시작. 졸업 후 전주에서 뜻을 펼치기로 마음 먹음. 일반 유치원, 학원에서 3년을 전전하다 1991년 드디어 일터어린이집에 정착하여 후회없는 나날을 3년째 보내고 있다. 또한 말없이 다정하기만한 신랑과 2개월째 살고 있어 행복하다.
2. 올해는 전북지역위의 내부 역량강화에 큰 목표를 두고 각 분과모임을 톤튼히 꾸려내고 일 말은 몇 몇 사람만이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탁위 교사전체가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산 지역 / 위양자



(1964.2.4생

해뜨는동산어선이집)

1. 대학생활의 시작과 함께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고생하는 어머니의 인생을 고민하다가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눈뜨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총여학 생회일과 총학생회 일을 하다 구속되었고 1년 6개월을 살고 1987년 6월항쟁으로 석방, 복권. 교사직업을 포기하고 노동현장에 투신해 생활하다 결혼했고 아이를 낳으면서 활동을 재개하여 탁아활동을 시작했고 달동네에 살면서 4년째 탁아소일을 계속하고 있다.
2. 선차적으로 지역위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싶다. 비영리 민간탁아소 자체가 거의 없는 현실이지만 그간 교류가 있었던 탁아소들과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내려는 노력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경과조치 사항을 고리로 결합하여 지역실태조사를 해내면서 기초의원, 민간탁아소 관계자들을 느슨한 형태로라도 조직해내야 하리라 생각한다. 군산지역에 탁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영리화를 막기위해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역내 아동행사를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마산지역 / 김명숙



(1952.10.19생,
두레아가동산
어선이집)

1. 일찌기 생산현장에서 3년정도 일했으며 판매사원으로 또는 사무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두레교회 교인으로써 두레아가동산에서 보조적인 일들을 맡아오다 올해부터 김지숙 원장님의 뒤를 이어 책임적인 일을 맡게 되었음.
2. 올해는 탁아소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여러가지 어려운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체계를 통해서 탁아업무를 좀 더 활성화시켜 실무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이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 / 강애란



(1966.8.7생,

우니아가동산)

1. 1989년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졸업과 동시에 기독교부암복지관에서 공부방교사와 편집을 맡아 일함 1990년 3월 새날어린이집 교사 시작. 1992년 부탁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가동산으로 교사로 일하다. 1993년 1월 부탁위회장 연임.
2. 첫째, 교사들이 탁아활동가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들을 갖춰나가고 탁아소가 인가를 받아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한다. 둘째, 아동교육의 체계화에 힘쓴다. 셋째, 앞으로 부산지역의 탁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의 시작으로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회장 임재택)'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함께 연대해 나아간다. 넷째, 무엇보다도 부탁위 소속 탁아소 교사들이 한사람, 한 탁아소, 한 가족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광주지역 / 박 말신



(1966.4.10 생

도 달도 달아기둥지) 을 계기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광주지역 민간탁아소 지원을 꼭 따내야겠다고, 아동교육을 중점으로 탁아교사로 자질을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올해에는 10월 어머니 잔치를 광주지역에서도 공동소풍이 아닌 큰 행사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대구지역 / 안 경숙



(1957.5.5생.

탁아소 준비중) 구지역탁아소 역사의 산 증인 중의 한사람이다. 1992년 4월 대구지역위 대표가 되어 참으로 의욕적으로 일했고 무엇인가 보일것 같은 시점에서 무지무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조금은 불행(?)한 그러나 뒷배경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탁아교사들)이 든든한, 탁아운동이 천직인 줄 아는 여성.

2. 첫째, 탁아교사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영세성을 벗어나서 전 문화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첫 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셋째, 대구지역의 탁아소들이 안정되어 발전,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넷째, 제대로인 탁아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1. 1989년 신방과 졸. 졸업후 광주 전남 여성회 간사로 활동. 1990년 도담도담 시작, 탁아경력 3년. 지역대표일을 작년부터 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느낀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순간순간 수그러들어 이르면 안되는 데 할때 안타까웠다. 나는 원만함(풍만함?)을 갖고 있으나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

2. 1월달에 광탁위의 이름으로 지역교사 4인이 일본방문을 하였다. 그간 활동이 부진했던 개별 탁아소가 이번 방일

특집 2 /

지탁연 가족 앙케이트 (지방교사 편)

편집부

질 문

- (이름, 나이, 탁아활동경력, 탁아소 명 순)
1. '92년 한해동안 탁아소 생활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은 ?
 2. '92년 한해동안 가장 기뻐했던 일은 ?
 3.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은 ?
 4. '93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

지난 호에 이어 지탁연 가족 앙케이트를 모아보았습니다. 대전 이남의 지방지역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이 난희 (24세. 11개월. 대전 샘골어린이집)

1. 탁아운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점
교사들간의 관계를 원만히 풀지 못한 점
2. 결단을 내려 대전 샘골로 오게 된 것
3. 거처 (자취방)의 문제와 놀이방 교사 충원 문제,
맡은 사업에 대해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4. 집에서의 압력을 없애고 내 생활 그 자체로 놀이방의 일에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
12월호 발간 이후에 뒤늦게 도착한 서울경인지역의 앙케이트는 지면 관계로 실지 못함을 양해해 주세요.
(편집부 주)

김 난희 (27세. 유치원 3년. 탁아소 2년. 전북 일터어린이집)

1. 건강이 좋지않아 항상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아이들과 만나고 선생님들께도 무척 미안했던 점
2. 결혼했던 것 (92년 12월 27일)
3. 결혼한 사람으로써 신랑, 시댁과도 더욱 좋은 사이가 되고 직장(탁아소)에서도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것
4. 내가 맡게 되는 분반 교육을 잘 해내는 것. 출산은 아니더라도 임신, 적금 성실히 넣는 것

김 미옥 (26세. 9개월. //)

1. 탁아소일 자체에 매몰되어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보내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생활한 점
2. 없음 -> 슬퍼서 생각해보니 탁아소와의 만남 (선생님, 아이들, 엄마들)
3. 올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4. 자격을 위한 전북지역 교육기관과 탁아소망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최 인옥 (26세. 1년. //)

1.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성실히 대하지 못한 점
2. 92년 1월 13일에 교사로서,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자원활동하던 때와는 또다른 느낌!)
3. 아이들의 교육 부분, 엄마들의 교육, 요구조건 (명목적 암기식, 많은 양의 교육..) 부모님의 결혼 독촉 (26이면 노처녀래요!)
4. 92년보다는 좀 더 나은 교사. 정말 좋은 사람(?)과의 만남



최 행복 (26세. 1년 3개월. //)

1.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점, 계획된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점
2. 오빠가 유학시험에 합격해 유학간 일, 60만원 미만인 아동이 지원받은 일
3. 아이들의 교육부분. 엄마가 자주 아픈 것
4. 92년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사가 되는 것



오 춘자 (33세. 7년. 전북 금암어린이집)

1. 학습하는데 게을렀다. 전북지역활동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강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밖으로의 활동들이 잦아지고 혼자의 시간들이 적다보니 학습하는데 게을렀고, 둘째아들 산하하고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다.
2. 둘째아들 산하가 건강하게 자란것을 감사하고 제1회 금암어린이집은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참석하여 새로운 탁아소의 인식이 생겨났다. 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다. 눈물과 웃음 한꺼번에 자아내던 순간이었다.
3. 금암어린이집의 새집 마련 (교회당회에서 93년도에 신축하기로 결정되었고, 금암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수익사업과 자립해야할 과제가 떨어졌다.) 2살, 5살 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의 활동들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아동복지에 관한 공부를 계속했으면 한다.
4. 전탁위에 소속되어질 민간탁아소를 늘려나가는 것. 교사들의 질적인 면 향상. 각 집별로 내실 강화 (보육문제, 교육문제)



오 마리아 (28세. 9개월. //)

1. 탁아소 경력이 짧아 탁아교사로서 나의 위치를 찾기가 힘들었다.
2. '선생님'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던 우리 3,4세반 아이들이 이제는 의젓한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3. 탁아교사로서 앞으로의 장래, 적은 봉급속에서 스스로 집에서 독립하여 홀로 서는 것.
4. 신출내기 탁아교사가 아닌, 이제는 좀 더 의연하게 탁아교사로서 일을 해나가야 하겠다.



최 미숙 (25세. 1년. // 어린이집 사무원)

1. 열심히 생활하지 못한 것
2. 재롱잔치 및 감사보고
3. 일년동안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을가
4. 열심히 생활하는 것



임 현정 (24세, 1년 7개월, //)

1. 교사들간에 친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함.
2. 행사 하나하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과 재물잔치를 준비하는 과정과 마치고까지
3. 앞으로 탁아소운영과 전탁위 운영 (?)
4. 교사들간의 단합



김 미라 (24세, 2년, //)

1. '보조교사로서 각 프로그램 시간마다 좀 더 계획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고 열심히 학습하고 의도적인 계획으로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했다라면 내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잡아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어머니 잔치와 재물잔치를 우리 탁아교사들 손으로 해냈다는 게 가장 보람있었고 탁아교사로서의 긍지를 느꼈다.
3. 어떻게 하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준비하여 아이들을 가르칠까? 내가 어떤식으로 교육해야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성장시킬까?
4. 어떻게든 치밀한 계획 아래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싶다.



이 미영 (24세, 2년, //)

1. 전탁위의 활동중에서 교사들끼리 각 탁아소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잘 융합이 되지 않을 때, 정기총회를 마쳐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93년 설계를 아직 못한 점
2. 전탁위 교사들이 서로 모여 협의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뜻있고 알찬 행사를 치루려는 뜨거운 열의속의 기쁨을 느껴본다. 금암어린이집의 재물잔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와 칭찬을 주셨으며 해주신 교인들의 마음에 어린이집의 모습을 다시 심어주었을 때.
3. 올 한해의 설계에 따른 나의 노력과 인간애를 위한 고민, 나의 철칙 몇가지를 꼭 지켜보겠다는 신념과 싸우고 있다.
4. 어린이와 함께 하며 그들을 존중, 그들의 흥미에서 시작하여 확대되는 개념을 소중히 하고 언제나 연구, 노력하는 열성적이고 멋진 책임감 있는 교사로 성



장하고 싶다.

위 양자 (30세, 3년 1개월, 군산 해뜨는 동산)

1. 5월 가족나들이에서 재미있고 신나게 놀지 못한 것, 거의 놀이를 아이들 중심으로만 하고 엄마들이 몸을 맞부딪힐 수 있는 놀이를 하지 못한 채 서먹하게 헤어졌던 일이 못내 아쉽다.
2. 해뜨는 동산이 넓은 공간으로 이사하게 된 점
3.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나가 되고 싶은데 어제 잘 안된다. 그래서 연말 년시에 더욱 노력했지만 나 자신의 내부적인 변화 느낌이 없어서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중이다.
4.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한대 사고 싶다.



한 효정 (26세, 2년 9개월, //)

1.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나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나의 힘들음을 먼저 내세워서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고 동료교사를 힘들게 했던 일.
2. 해뜨는 동산 소식지인 '깨북장이들' 4호가 나왔을 때 (내가 탁아일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만든 소식지였다)
3. 머리가 무겁고 목이 항상 답답하고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심드렁하니 생활에 활기가 없다.
4. 해뜨는 동산이 새로 이사한 집에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튼튼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게끔 하고 싶다.



김 향진 (25세, 1년, 부산 아기자람터)

1. 같이 일하는 여러 교사들과 좀 더 끈끈한 관계 맺음을 못한 것.
나에게 재산은 사람뿐인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2. 지난 대선때 탁아소 아빠들과 추운 밤에도 공감단 활동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일, 서로 고생은 했지만 민주정부 수립의 첫 느낌이라고나 할까?
3. 부산 탁아소의 인력난, 재정난으로 부탁위 소속 탁아소의 통합문제, 부산지역 탁아소의 위상정립이 잘 되었으면.
4. 부탁위가 우뚝 솟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새로 정리하고 세우려는 탁아소가 꼭 문을 열어 잘 운영되는 것.

강애란 (28세. 3년. 부산 우리아가동산)

1. 부탁위 회장으로서 부산지역 탁아소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와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지도하지 못한 점
2. 꼬마동산이 재정과 교사수급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으려 했을 때 어머니들이 '이 우암동에 꼭 필요한 탁아소'라는 말을하여 이에 힘을 얻고 주인 할머니의 도움으로 새롭게 꼬마동산을 단장하고 새로 오신 선생님이 열심히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3. 부탁위 소속 탁아소들의 내적 역량강화와 통합 추진위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탁아소 만들기'. 그리고 내가 속한 아가동산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고민중.
4. 부탁위 소속 탁아소, 교사가 한마음, 한사람으로 단결하여 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탁아소인가를 받아 아동교육의 체계화에 힘쓴다.

류수영 (23세. 1개월. //)

1. 1992년은 자원활동가로 교사와의 대화 단절이 제일 아쉬웠다.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후회스럽다.
2. 개인적으로 산을 알게되어 기쁘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산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3. 내 자신의 탁아운동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직업관정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4. 1년동안 후회없이 교사활동을 마치는 것



황보영희 (24세. 8개월. //)

1. 아이들의 교육에 힘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다.
2. 탁아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92년 6월)
3.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다.
4. 인가를 받아서 지원을 따내는 것, 교회와의 관계정립



빈혜영 (28세. 1년. 부산 꼬마동산)

1.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했던 것, 교사들간의 유대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했던 것
2. 91년 탁아운동에 대한 고민과 회의를 느껴 그만두고 나서 다시 탁아에 대한 개인적 재정립을 하고 다시 탁아소를 시작하게 된 것
3. 보육사 자격증 획득하는 문제, 안정되고 고정된 교사 구하는 문제, 현 탁아소를 보다 나은 탁아소로 이전하는 문제
4. 부탁위에서 추진하는 두 탁아소를 통합하여 멋진 탁아소를 만드는 것, 결혼.



한희진 (24세. 1년 3개월. 부산 새싹어린이집)

1. 아이들의 교육을 프로그램에 맞게 실천하지 못한 점
2. 조카 본일
3. 가족과의 갈등
4. 허가낼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김영 (28세. 2년. 도담도담 아기동지)

1. 교사가 바라는 교육내용과 부모가 요구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못했을 때.
2. 득녀한 일
3. 얼마, 아이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좀 더 원만한 관계, 부모가 교사에게 갖을 수 있는 신뢰감과 함께 탁아소가 운영되어 갈 수 있다면
4. 정부지원을 받아내는 일



김명숙 (27세. 3년. //)

1. 좁은 시야로 짜증나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변사람들까지 짜증나게 만들었던 것
2. 기쁜일이 많았을 텐데도 별로 생각나는 거 없음. 참! 울보 혜나가 용케 울음을 멈추고 적응했을 때
3. 앞으로의 전망- 탁아소의 전망이 곧 나의 전망이 될 수 있을까?
4. 짝꿍 찾는 것 (도와주세요~)



최미라 (24세. 2달. //)

1. 1992년 12월에 탁아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후회스러웠던 일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2. 탁아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3. 어떻게 해야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인가
4. 보육교사 자격정 획득



김삼순 (26세. 1년 3개월. 우리동네 아기둥지)

1. 자활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2. 특남한 것 (애인 구했다고요.)
3.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진로
4. 여성운동에 대한 이론체계 정립

주경남 (26세. 1년 6개월. //)

1. 아이들에게 화를 많이 낸 것 같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게을러서 아동교육에 너무 소홀히 한 것
2. 광택연 모임 때 나이트 클럽 갔었던 일
3. 내가 탁아교사로써 자질이 있는가
4. 특남을 하는 것 (애인 구함) 량주지역은 다 댕이네? 삼순이하고 완전한 관계가 되는 것. 알찬 내용을 담보한 광택위 활동을 전개하는 것

윤신애 (24세. 1년. 계림 아가방)

1. 애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점 (내 감정을 많이 앞세웠던 점)
2. 같이 일하는 박선생님 만났다는 것
3. 원아 모집
4.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

박미남 (25세. 1년. //)

1. 아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한 점
2. 같이 일하는 윤선생님 만난 일과 천사들을 만난 일
3. 원아모집
4. 운전면허증을 따고 홀로서기 위한 노력과 최선의 탁아 활동



이상숙 (21세. 2년. 무진사회복지관 무진 어린이집)

1. 보육교사양성교육을 받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한게 미안하다.
2.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받게 된 것이 기뻐다.
3. 학부형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자주와서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다.
4.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싶다.



김혜옥 (26세. 4년. //)

1. 탁아활동을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고 어린이집 내에서의 생활 중 교재교구 연구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후회로 남는다.
2. 프로포즈 받았던 일
3. 원활한 원아모집과 가족의 건강문제
4.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천미애 (28세. 5년. //)

1. 야간 편입 때문에 교육준비에 미흡했다.
2. 한여름 싸우면서 새벽반 다니면서 한번 떨어지고 2중 면허증을 땀던 일
3. 많은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증가해서 원아모집이 고민
4. 동반자를 구하고 탁아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김현선 (28세, 3년, 대구 달구벌 탁아소)

1. 함께 일할 동지를 구하지 못한 것
2. 별로 없음
3. 달구벌 탁아소의 안정화와 정상운영
4. 1년간 원장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며 탁아소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많이 염려를 끼치고, 탁아소의 제반운영이 원활하지 못했고 탁아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동지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진리와 정의는 꼭 승리함을 믿으며, 우리아이들이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전옥순 (30세, 5년, 대구 배꼽마당 탁아소)

1. 대구지역에서 2개의 탁아소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힘이 강건치 못하여 그대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을 때.
2. 20대를 마감하는 여행과 연애 사업
3. 배꼽마당 장소이전의 문제와 사업
4. 지역내에 주부취미반이라도 하나 할 수 있었으면.

★★—★★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 스크랩(Scrap)의 기본과 기교

스크랩의 기본단계는 일일 신문을 점검하면서 수집할 기사를 선별하는 것이다. 한달, 분기, 반년, 연간 등으로 적당한 시기와 분량을 고려하여 계속 수집한다. 수집한 자료의 중요도를 판별하여 출처를 확인하고 자료 출처지에 연락하여 원자료 수집 가능성을 타진하고 꼭 필요한 자료의 경우 협조를 요청하여 수집한다.

자본 기사를 스크랩하여 정리, 보관하는 데는 다음의 다섯가지 방법이 있다.

정리방법	장점	단점	용도
스크랩 책 방식 정형화된 양식지 비닐용지안에 보관(크리어포켓) 종이봉투 보관법 상자보관용	분류 용이 분류용이, 전시 회람 효과 꺼내기 용이	부피증대, 부분폐기곤란 불이기용 종이 필요 분실우려, 용기부피증대	대규모 전문가용 기업내부용 보관 활용 소량 단기 보존용
	꺼내기 용이 작업 용이	분실우려 분실우려	개인, 소규모집단용 개인, 소규모모임용

재정 사업 /

본 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합니다.

작년말부터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해 온 본 회의는 그 대안으로 본격적인 재정사업(방앗간사업)을 구상, 실천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본 회의가 다른 단체에 비해 재정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활동하였으나, 93년도 올해를 기점으로 외부지원이 마감됨에 따라 제기된 사업이었다.

재정사업의 구체적 구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으로 방앗간사업을 하게된 이유

재정사업 구상의 원칙으로는 일상적이면서 지속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과 가능하면 조직과 연결되어 같이 할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정사업에 걸맞게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소자본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회의 이미지를 손상하지않는 건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온 대안사업으로 유아용품사업(참교육사와 비슷한 사업)과 방앗간사업이었는데 앞의 사업이 본 회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강한 판매망을 갖고있는 사업체들이 이미 존재하기에 확실한 수익성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자본의 논리에 의해 유아용품의 상품화가 불건전하게 나아갈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포기하고 방앗간사업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이미 밝혔듯이 그다지 불황을 타지않는 사업이며 기술습득이 용이하고 탁아소의 필수품과 연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하는 참기름, 간식, 생일떡 등) 먹거리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결국 사업장이 있는 지역과 조직적인 판매망을 갖고 시작, 운영된다면 사업진행에 상당한 유리함을 안고 운영할 수있다는 판단에서이다.

2. 현재의 진행상태

<조직적 위상>

그동안 집행부와 지대의, 그리고 1993년 1월 총회를 거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볼때 본 방앗간 사업은 초기에 각 탁아소와의 강한 조직적 연결관계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일단 본 회의 사무국과 동등적인 재정 사업국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회는 이사업의 시작과 정착에 책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

〈사업 자금〉

본 사업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총자본은 5천5백만원이며, 그 중 본회가 조직적으로 마련해야 될 금액은 2천만원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회원 및 회원탁아소에서 기부할 금액이 5백만원이며, 나머지 1천 5백만원은 차입을 모아오는 일이다. 기부형식의 5백만원은 지대의의 결의를 통해 2월 13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각 탁아소나 회원교사들의 재정상태 역시 힘들겠지만 꼭 지원해주길 바란다. 모지역에서 기부금 마련을 위해 지역교사들이 졸업식을 기해 꽃판매를 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매우 고무적인 노력이 아닐 수 없다. 1천 5백만원의 차입금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1백만원정도의 마련이 요청된다. 현재 군산지역에서 5백만원을 차입하여 주었으며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아주기를 바란다. 시기적으로 많은 여유가 없으므로(1차 2월 14일, 2차 3월 14일 완료)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공간〉

현재 상태로는 2월 10일 잔금을 치루며 공간에 들어가고 곧바로 설치에 착수하여 3월 1일정도 개소할 계획이다. 기계설치는 2월 15일에 하고 기술습득의 방도는 마련하였고 앞으로 남은 일은 본 사업이 초기부터 활발히 벌어나갈 수 있도록 각 회원탁아소들이 관심갖고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것이다. 이는 무리한 지지가 아니라 그간 본사업과 관련된 품목을 탁아소별로 마련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

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2중의 논의구조를 갖는다. 즉 본회 내부의 집행위, 지대의를 통한 논의와 별도로 지역의 연관사업을 벌이는 주체들과의 모임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있는 생농회와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품목〉

각종 떡, 미숫가루, 참기름, 들기름, 김, 고추가루.

〈판매방식〉

1) 지역 판매

2) 탁아소대상 판매- 간식과 부식으로 떡을 이용하되 보급이 용이하도록 지역별로 시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탁아소를 중심으로 하여 물품을 제공받도록 한다.(잔치떡등)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그간 탁아소별로 벌인 수익사업(참기름, 고추가루, 미숫

가루 등)의 물품제공을 본 사업과 연결한다.

3. 재정사업 은행계좌

(보낼 때는 개인 이름, 탁아소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820-24-0248-131 (수취인) 최선희

재정사업에 관한 문의는 본회 사무실이나 최선희재정국장에게 아무때나 연락바랍니다.(최선희 032)525-8371)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

주택의 문제는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주택임대차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법률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 적법한 계약

현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차인만이 보호 받을 수 있다. 점포나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나 그것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전에 반드시 건물 동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소유임을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 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최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여 2년 동안은 임차인의 주거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의 자동갱신을 규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기존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이 임대인 외의 제3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항력의 요건으로는 첫째,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다. 둘째, 임차주택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 보증금 회수

첫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대금의 배당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소액 보증금의 회수방법이 있다.

일본탐방기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발달된 일본의 보육소

천미애 (광주 무진 어린이집)

이 글은 지난 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일본의 보육소 견학, 방문하고 돌아온 광주지역 탁아소 선생님 네분의 생활을 정리한 것입니다.
광주지역위의 방일은 지난 1992년 8월 본 회와 소속 탁아소를 방문한 오오사카의 유유아 발달연구소의 보육소 관계자들이 방한하고 돌아간 이후 일본의 성화 사회복지관의 (김덕환 총무) 초청으로 서울의 주민자치 연구소 일행 6명과 함께 '일본의 보육소와 주민자치제'에 대하여 알아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본 회 회장의 방일 이후 이뤄진 이번 방문은 한 일간의 민간탁아소의 교류와 연대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1992년 8월 일본 오사카내 보육관계자 17명이 광주를 방문했다. 보육실태와 아이들의 상황을 견학하여 각자의 보육내용 향상을 목적으로 온 이들은 탁아소 견학과 함께 교류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의 인연으로 광주지역위의 네명의 교사는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1993년 1월 25일부터 있는 일본 견학 일정에 대한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여권만들고 비자내고 ..

2월 24일 터미널에서 하얀 눈을 맞으며 잘 갖다 오라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5시 30분 광주고속 버스에 승차했다. 구정 연휴라, 길이 막힐 것을 염려했으나 마음은 즐거웠다. 공항 근처 여관에서 여정을 풀고 다음날 부터 지낼 일을 잠깐 점검하고 꿈나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사람

들이 오지않아 혹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하는 불안감에 다시 한번 장소를 확인한 결과 2층사였던 것이다. 휴! 공항버스를 타고 2층사로 가서 일행들과 함께 우리들이 탑승할 비행기로 갔다. 가는도중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했던지, 몸 수색,가방점검 .. 글썽 내 가방을 여는데 과자만 몽땅 보여서 얼굴이 뜨거웠다. 탑승해서 안내원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다. 이륙시간이 되어 비행기가 뜰 때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일행이 첫 키스의 짜릿한 맛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비행기 안에서 아래를 보니 말로만 들던 구름이 정말 솟털처럼 예뻐고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일본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를 초청하신 김덕환 선생님께서 반가이 맞이하여 주셨다. 아! 드디어 일주일간의 일본생활이 시작되는 구나.

봉고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성화사회관에 가서 서로의 소개를 하고 인사를 나눈 후 첫 방문지인 '유채꽃 진료소'에 도착했다. 65세 이상은 국민연금 보험이 있어서 한달에 900엔을 내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일본은 점차로 고령화되기에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인가 보다. 일본 탁아소 선생님들이 준비한 환영회 시간에 내일 방문할 5개의 탁아소 교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각자의 소개와 노래로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통역관이 없이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나를 가슴아프게 했다.

둘째날은 운영방식이 틀린곳으로 5군데를 방문했다. 우리 광주지역 도담도담의 실정과 비슷한 '이도바타 보육소'는 여성들이 뜻이 있어 만든 보육소인데 좁은 공간에서 두명의 실무자가 생후 6개월부터 6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돌보고 있었다. 준비한 선물을 주고 다음 장소인 성화보육소에 갔다. 모든 시설이 각 연령에 맞게 화장실,책상,침대 등이 배치되었다.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교사와 함께 삼으로 모래를 나르며 놀고 있었고 토끼 사육장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놀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천진하고 귀여웠다. 우리아이들에게도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만 남기고 다음 장소인 '에신 보육소'로 향했다. 이곳은 한국 아이들이 꽤 많은 곳으로 프로그램도 한국말인사,노래 등 다양했다.

천민부락 해방운동으로 생긴 탁아소가 '아스카 보육소'였는데 시설은 크고 좋았으나 아동수가 너무 적었다. 강당에서 아이들이 준비한 한국노래 '곰세마리', '산토끼' 노래 선물을 받았다. 우리들도 '텔레비전에 내가나오면', '등근해가 땀 습니다'를 율동과 함께 답례했다. 다음으로 갈 곳은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야간



(한국 어린이가 많이 다니고 있는

보육소와 겸비한 '희망의 보육소'였다. 이곳은 장애아 아이들을 함께 보육하고 있었는데 장애아에 대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산책, 수영, 작업 등을 함께 하며 세심한 배려까지, 정말 이전 배울점이라고 생각되었다.

세째날은 지하철을 세번 갈아타고 생활 협동조합을 방문했다. 가는 도중 많은 소형차들을 볼 수 있었고 소형 포크레인도 보았다. 일본은 모든 것이 아담 사이즈였다. 거의 나의 수준이라고나 할까. 생활 협동조합의 카사하라 사장님께 공동구입에 대해 듣고, 직접 배달하는 모습과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렇게 공동구입하면 이웃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

'애신 보육원'의 대집단 놀이시간) 는데 전혀 무관심한 답변에 조금은 놀랐다.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 보였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직접 생산지의 식품을 공급받아서 먹으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저녁 우리 일행은 카사하라씨의 별장에서 여장을 풀었다. 직접 요리도 해서 먹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통역관의 피곤함이 엿보인다. 다음 방문시에는 꼭 일본어를 배워와야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했다.

이튿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거센 바람과 파도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충분히 들뜨게 하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굴과 채소, 야채 등을 직접 생산하는 곳으로 출발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타국의 일본이 아닌 제주도에 온 기분을 맛보았다.

마지막날 우리는 일정에 없는 에다오다 원장님이 운영하신 '성애원'을 꼭 가고 싶어서 방문했다. 많은 자료 (운영방침, 계획안, 원비 현황 등)을 주셨다.

일본은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

은 너무 다른 것 같다. 보고 배운다는 입장에서 갔으나 조건이 너무 좋아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이 있기까지 일본 탁아관계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들의 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육시설도 잘 되어 있고하니 엄마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운영에 대해 무관심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엄마들의 적극적인 운영참여에 대해 부러워하고 보육소관계자들은 우리나라를 배우고자하는 것이다.

이들의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겠다는 것, 우리는 저렇게 되지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우리에게 놓여진 문은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탁아법 개정과 지역공동체 실현, 그리고 확고하고 올바른 아동교육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폭 넓게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일본의 탁아정책 제도는 우리의 수준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발전이고 복지정책이다. 한국의 탁아제도 정책의 발전을 우리는 꾀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체제의 변혁없이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20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함께 '함께가는 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더

창작공을 실는 금마당안에, 탁아소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적는 탁아소별곡, 다양한 생각과

솔직한 느낌을 적는 우리들의 목소리란 등, 독후감부터 감상문까지 ...

매월 5일까지 본 협 사무국 편집담당자앞으로 보내

주시면 가능한 모두 실어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지략연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글마당 /

시인 기형도는 죽고

김 향진 (부산 아가자라터)

89년 3월 7일 새벽 3시 30분
 기형도는 서른을 몇달 남겨두고
 종로의 낯설은 달빛속에서 죽어갔다.
 그가 죽어 가던날
 세상의 사람들은
 이불속에서 지루한 기억들을 잠 재운채
 토끼가 달아났던 웅달샘
 그 깊은 곳으로 나갔다.
 종로의 그곳에도 낯설은 달은
 토끼똥처럼 물가를 흐렸고
 악취나는 달이 그가 죽은 소식을
 퍼트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어디 그일뿐이겠는가
 똑같은 무게로 남루한 계절이 닥쳐와도
 각각의 집들은 굳은 철문을 닫은채
 가을을 사랑하고
 그렇게 시간이 문밖으로 지나
 또 우리가 그집을 두들겨도
 사람들은
 놀란 토끼마냥 귀만 세울 뿐
 철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어느날
 詩人 기형도가 죽어가던
 종로의 낯설은 거리에서처럼
 우리가 토끼똥같은 죽음으로
 퍼질러져 밟혀도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을 모를 것이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총괄 /

본 회의 '93년 동계수련회 및 제8회 정기총회 열려

1993년 1월 4일부터 2박3일간에 걸쳐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130여명의 전국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 동계수련회 기간중에는 제8회 정기총회도 함께 열렸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간 요구되어온 탁아운동론에 대한 발제, 경과조치 마감 마지막 해를 맞으며 개정활동에 대한 전망에 대한 발제 등 굵직한 사안이 들어있어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분위기에서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90년도 탁아운동론이 정리된 이후 우리운동의 발전, 객과적 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이 운동론 정립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져온 바 '92년 정책소위의 주요 논의과제로 나온 결과물이었다. 변혁운동과 탁운의 관계, 육아의 사회화가 무엇인가, 여성운동과 탁운의 관계, 지역운동과 탁운의 관계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조망하였다. 마지막날 있었던 개정활동의 전망을 밝히는 자리에서는 그간 우리의 법개정활동을 총평가하면서 법개정은 전면화 시기를 맞아 올해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우리 운동의 향방을 가늠하는 운동론과 올해 중점사업으로 잡혀진 법개정활동에 대해 전체교사가 모인자리에서 그 내용의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만하다.

사전에 미리 지역위별로 내용검토와 사전 토론이 준비되지 못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이후로는 이러한 중요사업이 있을 경우 사전, 사후로 지역위 차원에서 내용공유와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교육 분반활동이 자리매김을 하게된 것도 큰 성과였다. 교사들의 요구를 사전 수렴하여 신진교사를 주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역할' 영아탁아를 특화시킨 '영아탁아 특강', '성교육' '미술활동 실재', '수과학 특강' 등 5개의 분반으로 나뉘어 활동을 했는데 평소 자신의 관심에 따라 소그룹으로 진행된 강의들이 실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그외에 지방자치에 관한 강연이 인천시의원 홍미영씨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이후로도 지자체와 우리 운동의 관련성등을 볼 때 자주 이런 내용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체 놀이나 프로그램 사이사이의 음률활동, 노래 공연 등의 일정도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매번 느끼는 것이기는 하지만 1년에 두번 전체 회

원들이 모여 동지애를 다지고 우리의 조직역량을 한껏 과시하는 수련회는 다음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활동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있다.

1월 5일에 있었던 8회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 사업 계획보고, 예.결산안 인준, 부회장.감사위원 보궐선거, 재정사업에 관한 회칙개정등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신임 부회장으로는 남미영씨가, 감사로는 정성희.신현희씨가 선출되었다. 본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새로이 계획된 재정사업에 관한 사항은 결론을 못내리고 지대의로 위임되었다.

'92 대선 활동에 대한 총괄평가가 이루어져

지난해 10월 15일 중앙의 대선본부가 꾸러지면서 어느 단체보다도 발빠르게 대선정국에 대응한 본 회의 대선활동에 관한 총평가가 '93.1.26에 이루어졌다.

다른 정치사안과는 달리 대선이라는 굵직한 사안을 놓고 교사들간의, 혹은 연합회 차원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다.

내부적으로는 3차에 걸쳐 교사교육 일정이 진행되었는데 전반적 정치정세와 본회의 대선투쟁방침, 선거대책활동의 대중적 전개를 위하여 자모대상 교육에 대한 워크이 진행되어 많은 교사들의 호응을 받았다. 연대활동으로는 사대위와 여연과 공동활동을 벌였는데 중앙단위에서의 결합은 일정정도 담보해냈으나 실제 사업내용을 힘있게 받아 우리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위별로 보면 우선 교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중앙교육을 통해 교사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공선협, 공감단 등 폭넓은 연대활동을 벌였다. 자모교육은 정치사안에 대한 그간의 일회성 교육을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일상활동의 강화를 목표로 잡고 주간소식지, 대자보, 다양한 유인물 등을 통한 지속적 일상활동을 벌였다.

총괄적으로 볼 때 시기적절한 중앙의 교사재교육일정과 이를 토대로한 활발한 지역위 선거대책활동이 우리의 조직역량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사후 작업으로 신속한 활동평가가 나오지 못했던 점, 우리의 패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되지 못한 점 등이 이후 우리의 과제로 여전히 남게 되었다.

탁아소 별곡 /

새 날, 성숙의 느낌

이근선 (성남 새날아기마을)

"야, 너 아줌마가 다 됐구나. 왜 이렇게 늙었니?" 이런 말들이 요즘들어 술술 찹게 듣는 말이 되었다. 동그랗고 깨끗한 피부의 동안(童顔) 때문에 초면에는 항상 두세살 어리게 보는 것이 상례였는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언니, 나 늙어보여?"

"야, 내가 23살에는 날아다녔다. 애가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 잡는 거니?" 하며 깔깔거리는 성남지역위 언니들 앞에서 나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 묻는다.

"언니, 좀 봐. 배도 더 나온 것 같고 피부도 푸석푸석한 거 있지."

하마 손가락으로 볼을 푹푹 짚어보는 내가 우스웠는지 언니들은 자지러졌다. 그것도 그런것이 성탁협의 핏덩이로 21살에 들어와서 23살이 되었건만 몇 달 안된 신진 교사들보다도 두세살 어리니 언니들에게는 흘러간 세월의 철모르는 어린 시절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나이다.

늙었다는 말을 새해 덕담처럼 이곳저곳에서 듣고 보니 무뎠대로 무디어진 신경이 아무런 무리없이 팔래줄에 널린 팔래마냥 척척 늘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에 문득 늙어간다는 말의 느낌을 맛과 소리처럼 오감으로 느껴져왔다.

돌이켜 보건대 유난스레 복잡한 집안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며 때로는 부모까지 돌보아야 했고, 교사들 간에 서로가 힘이 되지 못했던 처음 1년간의 생활은 항상 적자인 살림살이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 이제는 23살의 나이로 있기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경험이 몸에 배어버린 까닭에 늙어간다는 말의 느낌이 온몸에서 풍기는 것이다. 옳다. 나는 늙었다.

요즘 새날 아기마을은 새봄맞이 단장에 정신이 없다. 올 겨울이 가장 춥다는

기상대 사람들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수세미를 들고 창에 매달린 우리들은 신이 나서 일을 한다.

아이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까만 눈알을 말뚝 말뚝 굴리지만 어디 말 안듣는
게 아이들만 그런가.

1월 한달의 추위를 호호불며 노래가락까지 흥얼거리는 우리를 동장군이 아주 약오르다는 듯 노려보고 있지 않은가.

글쓰기 소개 : 이 글을 쓴 이근선씨는 경원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991년 12월부터 성남지역의 새날 아기마을에서 탁아활동을 시작하였다.

차조적 사고를 위하여

1. 당신이 마지막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은 언제입니까?
 * 오늘 아침
 * 어제
 * 지난주
 * 지난달
 * 작년
2.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3. 당신을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정보가 주어질
 환경이 변할 때는 그들의 문제를 아제의 해결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즐긴기 때문이다. 창조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원천은 지식의 취급방법에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고 지식과 경험을
 조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차례차례 한가지씩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보라. 그것이 간혹 현실없는 결과로 끝날지라도 다소 거칠고 바보스러우며
 현실성이 결여된 아이디어를 정전다리로 삼을 때, 현실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다. 때로는 규칙을 파괴할 필요도 있다. 요컨대 창조적인 관점에 선
 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좀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되
 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아도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 내야 한다.
 여러분들의 아웅교육활동, 개별위활동, 자모조직활동에 창조적으로 임하라!

소식과 소식 /

◆♠♥♣◆♠ ♣연합회 소식♣◆♠♥♣◆♠

〈여성단체연합 (이하 여연)총회에 참여〉

제7차 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일 구세군회관에서 열려 본회에서는 최현숙 회장과 남미영 부회장, 이경희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당일 총회에서는 주로 여연의 '92년 사업보고와 승인, '93년 사업계획과 승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정에 관한 보고와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여연은 회장단의 임기가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선출된 여연 공동대표단은 한명숙(전 부회장, 현 여성민주회 회장), 이영순(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미경(현 한

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총무)이며, 이 중 한명숙씨가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93년 중점사업으로 [성폭력 추방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가 확정되었으며 논의구조로는 그간에 있어왔던 정책실을 해소하고 '정책전문위원회'와 '사업과 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다.

특히 여연 집행부 중 서기로 본 회 최현숙 회장이 새로이 선출되어 본 회가 상설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는 대표자회, 집행부, 사업과정책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보육위원회 열려 〉

1993년 2월 3일, 국립의료원 회의실에서 93년 1차 서울시보육위원회의가 열렸다. 논의된 주요안건으로는 '93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보육사업의 주요내용 설명에 따른 의견개진이었다. 그간의 성과로 먼저 작년말 회의에서 제기된탁아소에서 일하는 유아교육 전공자들의 경력인정 문제는 거의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점검되었고, 이어서 93년도 국공립탁아소의 재정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평균보육단가

현실화를 위한 점검을 요청하였고 더
불어 보육사업의 긍정성을 널리 알리
기 위해 텔레비전을 통한 홍보를 시도
해 보기로 결의하였다.

본회에서 제기한 민간탁아소 재정지원의 문제는 이후 다시 해결점을 찾아보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경과 조치마감을 앞두고 보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회의는 6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모임열려 〉

2월 5일 본 회 사무실에서 사대위 1차모임을 가졌다. 회의의 내용은 상반기 사업계획안 확정건이었는데 소속 단체들이 2월에서 3월초 임원이 변경됨에 따라 참석률이 저조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였고 다만 지난 평가에서 나온 올해의 사업방향을 대략 검토하였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12시에 공무원 의보노조사무실에서 갖는다.

< 보육시설 개원 설명회에 다녀와서 >

지난 1월 30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당에서 [중앙대 산업교육원 부설 보육교사 양성교육원] 주최로 『보육시설 개원 설명회』가 열렸다.

내용은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및 부모상담, 보육시설 인허가 서류절차 및 운영서류 소개, 환경구성 및 놀이감의 선정, 제작, 활용, 놀이방 운영사례발표의 순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설명회의 내용은 그다지 짜임새있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 보육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므로 참석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귀기

울여 듣는 열의를 볼 수 있었다.

주최측은 당일 참석 예상인원을 최대 200여명 정도로 예상해 자료와 식사준비를 했으나 이를 훨씬 넘는 300여명이 참석하여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일 '한국 영유아보육발전 연구회'라는 모임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탁아교사들의 세력을 형성해가는 단초가 될 것이며 우리 활동속에서 답을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다.

◆◆◆ 사람들 ◆◆◆

- * 부산 우리아가동산은 동아대에서 총여학생회일을 하시던 류순영씨를,
- * 이리 정다운놀이방은 원광대를 졸업하시고 자원활동하던 홍숙자씨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 구로 온누리탁아방은 유승현 (30세) 한미경(28세)씨가 지난 가을부터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늦게 소개드려 죄송합니다.

- * 부산의 아기자람터에서 일하시는 이원경 (27세, 별명은 뽀수)씨가 2월 14일 (일) 부산에서 결혼하십니다.
 - * 성남의 푸른솔애기방의 최고 언니인 권금숙씨가 3월13일(토) 1시30분에 결혼합니다. 장소는 서울시청앞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 새로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행복한 결혼을 지탁언 전가족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 모임과 모임 ◆♠♥

<지역대표자회의>

1월 14일 서울경인지대의 (안양,부천 불참)

신년 첫모임으로 신,구지역대표가 함께 모이기로 하였으나 성남과 구로 지역만이 함께 참석하였다.

신,구지역대표소개로 시작하여 여성단체연합 총회준비위원회 구성과 모임 2월에 예상된 지대의원과 개특위원 신년 합식에 대한 논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여 2월 13일로 일정만 잡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후 지대의에서 하기로 하였다.

정책소위 구성에 관해서는 논의력의

보고,개특위,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에 대한 중앙보고가 있었다. 지역에서는 신년계획과 각 분과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신년계획이 나오지 않은 지역이 많았다.

심화와 충실한 역할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자격을 지역대표만으로 한정짓지 않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신년계획과 대선총괄평가,동계수련회 평가 등을 다음회의로 넘겨 논의하기로 하였다.

1월 28일 서울경인지대의 (봉천,안양,부천,인천 불참)

여연 총준위와 정책소위의 신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지역신년계획은 2월9일까지 각 지역에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기로 하였다. 또한 신년부터는 월2회 (첫째,세째주 목요일) 지대의 회의 중 둘째번의 회의를 지역의 상황보고와 그속에서 전체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를 드러내어 집중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2월 13일 합식은 각 지역위원회 지역대표들이 참여하는데 내용은 대선이

후 향후정세와 지탁언 올 한해의 활동 및 사업계획의 논의와 인준,지역대표자의 역할과 임무,지도력 강화 훈련 등이다.

지난 8차 총회때 지대의로 위임된 재정사업국에 대한 사항은 조직적 결합의 필요성속에서 재정사업국으로 두고 자세한 사항은 내규에 담기로 하였다. 교사조직분과와 자모조직분과의 통합,방앗간 사업재정확보,달력판매수금,평화의집 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2월 3일 지방지대의 (마산 불참)

중앙의 활동보고와 각 지역의 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수련회에 대한 간략한 평가가 있었다. 지방 지역위원회에서는 신년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2월 9일까지 서면 제출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개정활동과 각 지역위원회 활동 등이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통일집중적으로 펼쳐져야 함을 인식하고 지방지대의에서는 지방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전체계획과 함께 3월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지대의 회의를 서울

경인지대의와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해 중앙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신속한 정보의 공급과 사업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회의를 할 경우 하루이상이 소요되어이에 따른 지역교사의 하중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기에 이 안전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한 후 3월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방앗간 사업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부금 수납을 2월내로 마치기로 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

서울경인 개특위는 1월 13일 신년 첫모임을 시작으로 1/17, 2/4에 걸쳐 세번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법개정 사업안과 제도요구투쟁, 민탁연대 등 올해 사업목표를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작년에 실시한 탁아소 실태조사 분석작업을 하였다. 2월 한달은 신입개특위원 자체 학습일정이 잡혀있다. 올해는 지구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시,도 개특위 모임을 별도로 갖기로 하였다. 신입개특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경희(북부), 김명숙(동부), 박상희(구로), 이해주(봉천), 김미숙(수원), 신현희(성남), 최화영(인천), 박금희(안산)

지방개특위는 첫 모임을 2월 22일(월)에 할 예정이다.

< 조직분과 >

'92년에 자모조직분과와 교사조직분과로 진행되어왔던 분과활동이 올해 개특위 및 아동교육분과 활동의 강화를 위해 통합구조인 조직분과로 진행되게 되었다. 분과원을 소개하면 송민숙, 김명숙(인천), 전미경(구로), 심선경(안산), 박경숙(북부)이다. 조직분과의

위상과 역할로는 각 지역의 교사들이 조직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논의와 교육, 실천활동을 잡았다.

2월 사업으로는 대선활동을 평가하면서 '93년 정세속에서 지탁연 활동의 전망과 과제를 잡아보는 교사정치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 서울 경인 아동교육분과 >

'93년 아동교육분과의 목표는 일상 교육의 교류활동을 정례화시키고 탁아

'93년 전망이 밝게 보인다. 또한 교육 연구부의 연구내용들을 좀더 구체화시

소 일상활동을 지원하며, 아동관토론회를 통해 아동교육관을 확립해 나가는 것으로 잡았다.

1월 19일 1회 모임에서는 신,구 분과장 인사와 한해의 계획 대강을 잡았고 2월 2일 2회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지역계획과 중앙계획의 발표를 통해 올해 사업의 주요 방향과 일정조정이 있었다.

'92년에 이어 9개의 지역에서 10개의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작년 활동의 축적이 그대로 올해 사업으로 이어져

키고 실천해내는 일들을 통해 교육철학을 확립하고 탁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과제가 되겠다. 자세한 방향, 계획, 일정은 2월 13일 지대의 합식을 통해 문건으로 발표하게 된다.

분과원으로는 김선자(북부), 박경자(구로), 나은미(동부), 윤희정(수원), 김실이(안산), 이영순(인천), ? (성남)이다.

지방교육분과는 아직 지역계획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아 모임을 못했으며 2월 중순에 모임을 할 예정이다.

< 교육연구부 >

'93년 교육연구부의 사업계획은 1992년에 이어 교사들의 아동관을 정리해 나가는 아동관 토론회가 3, 6, 9, 12월에 걸쳐 4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싸움과 관련하여 우리의 방향과 법안 내용을 만들

어 나가는 작업을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한다.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교육'이라는 전반적인 주제와 그 중 '교육철학'에 대해 짜임새 있는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위원회 소식 ◆◆

1월에서 2월로 넘어오면서 각 지역위원회는 지난 1992년의 활동평가와 올 한해의 활동 및 사업계획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1월에 두번의 지역대표자회의에서 특이한 내용이 보고된 것이 없음으로 평가와 사업계획으로 대신합니다.

단, 지방지역은 2월 4일 지역대표자회의에서 보고된 각 지역별 보고중에서 정리를 합니다.

< 대전 >

신탄진 놀이방이 새로 개원하여 아이들을 받아들임.

< 군산 >

해뜨는 동산이 이전하여 2월 28일에 개원식을 함. 바뀐 주소는 '군산시 선양동 259-9 8/1'이며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음.

군산시에서 아동지원금을 전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1,2월분을 소급하여 지불하였는데 이는 3월에 군산시의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

< 광주 >

무진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유치원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직 교사들을 해임하겠다고 하여 대책을 고민중에 있음. 보육료를 인상하여 24개월이상은 6만 5천원, 미만은 8만원이다.

계림아가방은 원아모집이 안되어 고민이며 보육료는 5만원이다.

도담도담 아기둥지는 운영의 적자로 인해 지난 12월부터 교사활동비가 지급되지 못하였다.

발산우리동네는 보육료를 10%로 인상하여 4만8천원이다. 발산우리동네는 사랑의 놀이방으로 전년도에 구립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지원금을 년 1천20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의 경우 삭감될 예정.

사랑의 놀이방을 제외한 나머지 탁아소들은 전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아동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구청과 시청의 지원에 대한 입장이 틀리기에 작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1월 25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광주지역위 소속 탁아소 4명의 교사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음.

광주지역의 지역소식지 '무등의 아이들' 제4호를 준비중에 있음

< 전북 >

금암어린이집은 교회공간내에 있던 어린이집의 새 건물을 교회 옆 부지에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임.

일터어린이집도 부지100평을 마련할 경우 건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방법을 고민중에 있음.

< 부산 >

새날어린이집은 교회가 이전한 관계로 인하여 공간 마련을 위해 1년 정도 휴원할 예정임.

아기자람터와 꽃들나라가 통합하여 새로운 탁아소로 태어나기 위한 작업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음.

부산의 걱정모임이 법인화하고 부탁위가 이속에 들어가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고민하여 추진중에 있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전망이다. 걱정모임의 회장 임재택교수가 부산대 '여성학 연구'에 기고할 논문의 주제를 '민간탁아시설의 현황과 문제'등으로 잡아 부산지역위에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을 하고있음.

우리들의 목소리/

나는 탁아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박정애 (동부 오손도손 애기방)

설날 전전날 나의 소중한 연인과 양쪽집에 가져갈 값싼 선물을 함께 고르며 '아!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인가, 나 이들어 연애하는 맛이 이렇게 짭짤할 줄이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은 행복한 내나이 이제 29세.

한살 한살 나이를 먹는 것이 갈수록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직도 어련애 같기만한 내 자신이 실수나 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현실에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듯 해 초조하기도 하고 때론 이해안갈 정도의 여유로움도 생긴다.

탁아소 생활 2년!

어린이이라면 울리는 것이 취미였고 귀찮은 존재로만 여긴 내가 탁아를 하겠다고 했을 땐 주위에서

"네가?"

"그래,장담은 못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반응속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도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다짐한 이 행당동 달동네에서.

헌신,열정적인 자세가 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신념과 의지아래 어려운 역경 또한 이겨가려 했던 몸부림이 아득하다. 아이를 종일 보고 자모,지역주민을 만나 얘기하는 시간들이 난 늘 소중하고 즐겁다. 피물같고 웬수같

기도 한 아이들, 그러나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기 벅찬 살뜰한 정을 느낀다.

작년 상반기 우리 애기방으로서는 결단의 시기가 있었다.

재개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재개발이 현실로 다가와 세입자 조직을 구성하면서 실무자가 요구되었고 긴 고민과 논의에 들어갔다.

탁아운동,지역운동 선.후를 떠나 지금 처한 조건과 실천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대중들의 요구를 모으고 우리의 대중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대중이 처한 현실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섰기에 애기방과 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애기방 반상근 교사, 세입자대책위 실무간사 ..

그러면서 가장 서운했던 것은 개특위 사업이다. 개특위 초창기부터 1년 6개월의 활동에 애정도 생겼고 1994년 1월까지의 책임지며 지탁연애,탁아운동에 기여한다는 입장이 분명했는데, 중앙사업에 열중하며 동부지역 개특위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 개인적으로 서운하고 참으로 아쉽다.

나는 탁아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탁아운동의 생산성,건강성이 좋고

대중활동의 신심을 가질 수 있어 좋다. 그래서 난 철거가 되어 천막촌에 들어가서도 탁아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이 지역에 탁아공간을 따내기위해 얼마남지 않은 내 청춘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탁아활동보다 다른 일이 중요하게 요구될 때 우리 지역이 해체되지 않는 한, 난 그일을 할 수도 있다. 변혁은 남한의 구석구석 방방곡곡에 대중들의 함성이 거칠게 드러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지역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소박하게는 동네에서 좀 똑똑한 주민으로 살아가며 어려운 일, 지역의 작은일에서 큰 일까지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려 하는.. 그러면서 운동에 복무하며 살아가려 한다.

결혼도 해야겠지.

튼튼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첫날의 수줍음(?) 이 떠오른다. 초롱 초롱한 눈길들이 나에게 향해졌을 때 어떤 말과 표정으로 대해야 할지 몰라,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던지고는 내내 컷볼이 뜨거워 혼났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라는 소개가 되었는데도 아이들의 단순함인가? 다시 와서 묻는다.

"누구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부끄러워 이제는,

"날마다 만날 사람이라."

하고 씩- 웃고 말았다.

불행히도 가난한 나의 애인. 오랜 친구로 지내다 작년에 결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슴이 있는 여자로 돌아왔다. 올해 결혼예정이었지만 재개발이니 방값마련이니 더우기 결혼 후 가사일 분담이 합의가 되지 않아 늦어지겠지.

결혼후에도 지금과 같은 활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5남매 딸이니 시댁일은 또 얼마나 많을지..

믿는 수밖에. 나를 믿고 가난하지만 착하고 사람좋은 나의 연인을 믿는 수밖에...

마지막으로 개특위위원들께 그 누구보다 지탁연에 충성하며 열심히, 열심히 하길 간곡히 바라며 올 한해 활동을 기대해 본다.

박성미 (부천 튼튼이 어린이집)

어설픈 시작했던 튼튼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한달이 확 지나고 벌써 정교사가 되다니.. 별로 한 것도 없이 한 달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로 쓰다보니 이것 저것 생각이 막 나네.

세월이 빠르다지만, 이렇게 머리에 채워진 것 없이 지나가니, 마음이 답답해 진다. 퇴근시간이 되면 떠오르는 친구생각도, 씨주 한잔도 단호히 (자주는 아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자제력이 생긴다.

필요한건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되지만 감으로 주섬주섬 몇 권의 책을 들고 돌아와 땀에는 심하게 내일해

야 할 교육내용을 정리한다.

아! 노래도 알아야지,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팔래를 하면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청껏 따라도 부르고.

나름대로 이 책, 저 책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단순하고 어설픈건지 깨닫게 된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열심히 먹고 건강한 사고로 몸도 마음도 잘 크고.. 이렇게 가졌던 내 사고의 무지를 한탄하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들을 노력하고 있다.

잊지 못할 첫 산행기

눈덮힌 하얀 산을 보고 싶다.

눈이 주는 맑은 색채 감각의 신선함과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이기며 견디는 나무의 의연함을 다시보고 싶다. 1980년 후반 서점가에는 '지리산'과 '탈치산'이란 낱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고민했던 나로서는 부끄러웠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정신없이 '남부군', '태백산맥' 등을 읽으며 지리산을 가보고 싶었다.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가슴에 꽂 와 닿았다. 드디어 1988년 2월 중순 뜻맞는 친구들끼리 가기로 결정을 보며 설레임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냈다. 겨울산의 어려움, 특히 지리산이 주는 험준함, 동행인들의 체력과 지구력의 점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리산 천왕봉만의 생각으로 머리속은 꽉 채워졌

잠깐! 지역의 여러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다. 노력과 고민은 계속적이겠지만 좀 더 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생생한 경험들을 커피 한잔과 더불어 나누어 주세요. 후배양성에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신 이후 튼튼이 어린이집으로 연락 주세요. (연락처는 032) 676-1887)

뭔가 약간의 부담이 풀린 듯 하다. 아! 내일부터는 초롱한 눈으로 아주 맑은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다.

"튼튼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정님 (대전 샘골 어린이집)

다. 출발의 힘찬 나팔은 울렸으나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친구들은 뜻밖의 사정으로 가지 못하고 남자후배, 후배의 여자친구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떠나게 되었다.

새벽 전라선을 타고 남원에 도착, 첫 시외버스로 백무동 계곡 입구에 도착했다. 싱그러운 공기를 한껏 마셨다. 드디어 왔다. 말로만 하던, 듣기만 하던 지리산을 보러 왔다. 힘이 솟는다. 발걸음도 가볍게 출발하니 아침에만 난 두명의 아저씨 밖엔 동산객도 보이지 않는다. 뒤통뒤통 걷는 우리들의 배낭을 다시 챙겨주시는 자상함을 배풀어주시고 헤어졌다. 가도가도 하얀 길. 눈위에 찍힌 새 발자국.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눈구경도 잠시, 곧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왔다. 더구나 한발 내딛으면 두발 미끄러지기, 여자후배는 완벽한 똥차(?)로 거의 걷지



를 못했다. 리본과 쓰레기를 찾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터목 산장에 무려 저녁 7시 30분에 도착했다. 문밖에서 서성이며 우리를 기다리던 아침에 만난 아저씨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신 눈치다. 알고 보니 4시간 거리를 약 9시간을 걸었으니...

그 이후가 문제였다. 잠자리, 식사 문제, 산행의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현지조달 (산사나이들의 도움)로 무사히 넘기고 천왕봉에서 멋진 일출을 보았다. 날아갈 듯한 매서운 바람속에서 저편 저멀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얼굴을 내미는 그 모습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황홀함으로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만 눌렀다.

지리산에 와서 천왕봉에 오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과 함께 내가 책임질 것이니 오르자고 부추겼던 산

(52쪽 아래에서 이어짐)

로 무엇인가를 할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

사나이들에게 절로 고마움으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하나의 몸도 힘들텐데 우리들까지 끌고 올라가서 이 멋진 광경을 보여줬으니 이 아니 고마울 소나이 절긴 인연은 하산때까지 이어져 무사히 내려와서 감칠맛 나는 파전과 토리묵, 동동주로 마무리 하였다.

장터목 산장에서 세석까지의 멋진 눈구경속에 다리 아픈줄도 모르고 걸었다. 눈꽃의 아름다움, 눈 덮힌 산자락의 포근함 특히 겨울산의 매력인 엉덩이로 내려오는 그 짜릿함과 그 재미를 듬뿍 만끽하였다.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 뿌듯함으로 가슴은 차올라왔다.

이후 나는 지리산을 다녀왔다는 자부심으로 산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기와의 싸움끝에 이를 극복하고 산 꼭대기, 정상에서 땀 흘리는 그 재미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산행을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력에는 반대한다. 너희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도 같이 하겠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면 경찰들이 우리를 잡아갈 이유가 없지."

문화단신 /

『놀이치료로 좋아졌어요』를 읽고서

서현경 (안산 꿈나무 어린이네)

에게 적절한 조건 (놀이 환경)을 제공해 준다.

개별적 관계 (교사와 아동의 1:1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집단속에서 집단 치료를 시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검사 -언어, 지능, 청력 ..을 통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속에서 또다른 시도들을 해 나가기도 한다. 그전 과정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아이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어울려 가는 놀이치료의 과정이 이 책의 내용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줄곧 내가 만나는 사랑스런 꿈나무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해맑은 얼굴들이 스쳐가며 교사로서의 내 모습과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머리속으로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존중하지 못하고, 많은 금지들을 했던 나의 모습을 새삼 돌이켜 보았다.

둘째는 아이들에 대한 관찰과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이다. 아이들의 행동들과 놀이의 과정에 대해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고 취사, 청소 등의 잡일과 격무에 시달리는 열악한 환경의 탓으로 그원

이 책은 '놀이치료'란 어떤 것인가를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놀이치료란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패하게 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는 자연스런 자기표현의 매개체로써, 성인은 말과 그외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표현하고 발산한다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그의 축적된 긴장감, 좌절감, 불안감, 공격심, 두려움, 당혹감, 혼란 등을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즉, 놀이를 통해 그런 감정들을 발산시킴으로써 아이는 자신의 여러가지 감정을 표면에 떠올리고, 외부로 이끌어내며, 그것과 직면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정상의 긴장해소가 이루어지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기내부에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 생각하며, 제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성숙해 간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격려하며, 좋은 놀이를 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바로 편안한 놀이환경속에서 아이의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가고 있다. 문제행동을 가진 아이가 이곳 놀이치료실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교사는 세심하고, 상세하게 관찰하고, 아이

인을 돌렸던 안이한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이해속에서만 올바른 교육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문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속에서만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탁아소의 동료교사들과 아이들의 부모와의 합의와 노력속에서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 책은 지탁연 소속 탁아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환경이 다른 중산층의 아이들로 그 대상이 국한되어 있어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며, 적용에 있어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놀이치료의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대

『60년 후』 (한울 출판 / 4천5백원)

『벧』이라는 작품으로 남한 독자들에게 친숙한 북한 작가 백남룡의 소설. 현장 노동자로서의 작가의 체험이 북한의 사회현실과 어우러져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더 좋은 제품, 또 외제입니까』

(다리사회개발연구소 / 6천 3백원)

외국제품으로 물든 소비문화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판 '물산장려운동' 성격을 띤 책자. 외제보다 더 좋은 국산품, 세계가 인정한 일류 상품 기업, 우리것 지키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단체들을 소개했다.

한 서술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를 교육하는 교사들이라면 한번쯤 불만한 책이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인내로써 아이들 자체를 이해하려 했던 교사의 치밀한 모습과 부모들이 보여준 교사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아이를 키워가는데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우리 지탁연 활동에 있어 아동교육의 질적 성숙이 절실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동양육의 한 주체인 교사로서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곳곳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음을 늘 생각하며 더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내일도 탁아소의 문을 세차게 두드릴 꿈나무들을 맞이하고 싶다.

(샘터 유아교육신서 27, 값 3천원)

『우리네 일터』 창간

도서출판 '일터'에서 『우리네 일터』를 93년 1,2월호를 창간호로 시작하여 노동자 종합 교양지를 냈다.

실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사람들의 목소리, 요구, 필요를 가까이 들어서 살아있는 이론, 목적의식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편집장 박치관씨는 창간호 인사말에서 밝히고 있다.

현재 생생한 노동운동의 상황을 전달하고 정치, 경제면과 문화면까지 골고루 실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날의 노동운동을 했던 분을 찾아 그 귀한 경험을 들어보는 글도 실려있다. 정기구독도 가능하다. (연락처 389-6131)

한국연극배우협회의 '어머니'를 보고서

- 이것은 잘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이자 잘못 만들어진 연극이다 -

박성연 (사무국 아동교육간사)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이 넘쳐 무대 바로 밑 오른쪽 끝에 앉았기 때문에 관객에는 악조건이었지만 극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에서 눈을 떼 수가 없었다.

배우들의 극을 전개해나가는 진지한 열의와 연극 무대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효과'의 사용으로 인해서였고 그것이 한국에서 기성 배우들의 연극으로서는 초연인 본격 사회주의 극이라는 점도 관객에게 눈을 떼기 힘든 진지한 태도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무대장치의 간결하면서도 관객을 압도하는 상징성과 처리, 절제된 조명의 색과 그것이 창출하는 분위기, '어머니'의 대본으로는 가장 좋다는 브레히트의 것, 무난한 대사 처리, 어설플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탄탄한 짜임은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극이 끝난후 잘 짜여진 탄탄한 연극이라는 흡족함에 이질적인 느낌과 생각이 자리를 하게 다. 그 같은 화려한 무대와 브레히트의 손을 거쳐 세공된 함축적이고도 강렬한 대사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가? 가슴을 치는 감동보다는 대사의 나열이 압도하여 열심히 한것은 인정하지만 건조한 대사의 편린들만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더 비판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어머니'를 통해 '막심 고리' 간동안 이를 관람한 천여명의 관객들

끼'라는 아들은 혁명의 직접적인 선전이나 선동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들의 '탈선'을 은근히, 또는 적극적으로 만류하면서 그야말로 '노동자의 미망인'이자 '노동자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질수밖에 없는 노동자 계급의식, 그것을 통해 보이려 한 노동자 계급의 선진성과 더불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깊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러한 혁명의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러한 이중, 삼중의 고도한 감정에는 근접도 하지 못한채 그저 대본에 쓰인대로 말하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앵무새의 역할을 한것으로 비쳐졌다. 이것은 연극에 있어서 극적인 짜임새와 함께 커다란 축을 이루는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연극의 현 상황을 돌아볼때 이 두가지의 축에 모두 충실하여 잘 만들어진 연극을 찾이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전개했던 원칙적인 비판보다는 좀더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 작품의 평을 총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기성 연극배우들을 통해-운동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주의 문예물이 극화되었다는 것은 그 질을 떠나 양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부정정보다는 긍정성이 많은 것이며 만든이들의 의도야 어땠든간에 공연이 진행된 일주일의 기공장도 사장의 것이 아니니?"

에게 부분적이거나 '어머니'라는 원작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만족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 '좀 봐주는' 만족이므로 앞으로는 봐주는 것 없는 만족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만족감을 기성 배우들에게 기대하기란 그들 존재의 한계를 살펴볼때 거의 힘든일이라고 생각한 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지고 나갈 사람들은 넓게 보면 모든 운동 세력, 노동자 계급이며 이런 해결 양상이 민중을 주체로 하는 연극 배우들의 몸과 입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연극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같은 말을 두서없이 내뱉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나, 무지가 용기를 낳는다고 잘 모르는 관객의 입장이지 오�히려 더욱 가능한 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합리화하여 또 감히 이 글을 많은 사람들앞에 내보이려고까지 한다.

여하튼 이번 '어머니'는 '잘 만들어 지고 잘못 만들어진' 연극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며 그 부정성은 현재의 운동세력과 민중을 주체로 하는 극단의 힘으로만 깨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첫 '깨임'이 시작되는 의자의 공장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실어본다.

"어머니 사장이 우리에게 갑자기 감봉을 하면 우리는 그에 대항해 싸워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파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애야, 이 의자가 내것이듯이 그

" 그래요."

"그렇다면 내 의자를 내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사장도 공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 아니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아니니? 이 의자는 내것이기에 문에 원한다면 다리를 잘라 낮게 앉을 수도 있고 아주 떼버릴 수도 있고 부숴버릴수도 있지 않니?"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장의 곤장은 어머니의 의자와는 달라요. 어머니가 의자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장이 공장을 어떻게 하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요."

"사장의 공장은 우리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기계를 사용해 물건을 만들어내지요. 사장은 우리들이 일할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없다면 그 기계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고철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때문에 사장에게 우리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고 그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되요."

"그렇지만 너희 한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몇백의 노동자의 같은 소리라는 것을 안다면 사장도 우리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파업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사장의 뒤에 왜 경찰이 버티고 있는거니? 너희들이 폭력적으로

(48쪽의 아래방향으로 이어짐)

지택연 베품시장/

판	보육프로그램 10권, 4만원	자장가 테일 셋트, 4천원	국악동요테일 셋트, 7천원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3천5백원
매	『일하며 키우며(백산서당)』 시중 5천원, 공급가 4천원		『탁아교사를 위한 교육자료집 - 제1부 아동교육(지택연)』, 5천원	
	수.과학 활동자료집 2천5백원	『탁아자원활동이란』 1천원	울릉도오징어 20마리, 2만5천원 새터어린이집 (02-867-8698)	
구 함	사무실에 책자와 간행물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책꽂이(게시대)를 구함. 탁아소에서 즉시 안쓰시는 것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 바람.			
알 림	< 전체 지대의원 하루MT > 2월 13일(토), 하루종일 송실대사회봉사관 1. 지대의원의 역할과 임무 2. 지도력 훈련 3. 93년사업과 활동논의		< '93년 서울경인자활가 대표교육 > 2월 12일 (금), 12시~오후 6시 서울 홍익대 여학생 휴게실 1. 지택연은 어떤 곳인가 2. 아동교육개관 3. 자활단위의 조직관리	
	달력 판매 대금을 속히 송금 또는 직접내 주시기 바람 (2월 25일까지) 온라인 구좌: 304-08-252919 (상업은행, 수취인 최선희)			
	방앗간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회원들의 애정 어린 기부금을 받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대표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미납된 연합회비를 정산해주시기 바라며 올해 1,2월분 연합회비를 연합회로 직접 내주시기 바랍니다. (1만원)	노래분과원을 모집함 노래에 관심있는 교사들은 누구나 참여가능 연락은 2월말까지, 사무국 문화홍보간사앞	
	매달의 화제영화 관람 하실 분 연락바람 편집부원 모집함 (편집부)	1993년 보육사업지침이 나왔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필요한 부수를 사무국에 신청해주세요. 회원공급가 3천원, 외부판매 3천5백원		
	『쌀 수입 저지 전국농민대회』 일시: 2월15일(월) 오후 1시 장소: 서울 동국대학교 주최: 전국농민회총연맹			

편집부에서 /

이번호는 1,2월 합본호로 냅니다. 원래 기획되어 있었던 1993년 활동일정과 사업계획을 실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 합본호로 내니까 시간을 벌어 약간 수월하겠지? 했던 나의 기대는 또 아니더라. 시간은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지? 다시한번 나의 무능과 게으름을 탓하며 1,2월 합본호를 낸다. 널 때마다 모자란 점에 부끄러워 어쩔줄 모르겠다. 오로지 '함께 ~'의 모자란 점들은 교사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비판으로만 채워질 것이란 생각을 하며 .. (희연)

교사들의 소식지를 만들 때마다 더욱 절실해지는 것은 지탁연 교사들의 애정과 관심이다. 이번호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이 정말 미안한 마음이다. 이젠 소식지가 내 자식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교사들 생각은 어떠신지 .. (애용)

아 ~호! 또 한 호 냈다. 냈다는 것에 우선 의미를 두는 이 아마추어적인 발상! 이번호 원고들을 읽으며 눈물이 나와 혼났다. 어쩌면 그렇게 다들 소박하고 따스한 마음을 가졌는지...컴퓨터치면서 웃기도 많이 웃었다. (아마 귀들이 간지러웠을걸?) 한분 한분의 표정과 몸짓이 그대로 배어나왔기에.. (정은)

펴낸 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02) 838-3296~7
펴낸 이: 최현숙
맡은 이: 정희연, 이애용, 서정은
펴낸 날: 1993년 2월 11일

